

### 작년 한해 광주서 보행중 사망 51명 횡단 보도내 과속·무단횡단 근절을

#### 나부터 안전운전



#### ③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또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보행자도 1846명에 달했다. 전남은 137명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고, 1963명이 다쳤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차량중심 교통체계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별도의 보행 공간 없는 도로가 많아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를 걸거나 갓길을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보도에는 전주, 가로등, 불법간판 등 각종 시설물과 불법적치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육교·지하보도 등 보행에 불편한 시설물들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횡단 보도 내 신호위반과 과속 등 무질서한 교통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이며, 이중 2082명(37.8%)이 길을 걸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나 광주는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2008년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 비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3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보행자도 1846명에 달했다. 전남은 137명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고, 1963명이 다쳤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차량중심 교통체계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별도의 보행 공간 없는 도로가 많아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를 걸거나 갓길을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보도에는 전주, 가로등, 불법간판 등 각종 시설물과 불법적치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육교·지하보도 등 보행에 불편한 시설물들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횡단 보도 내 신호위반과 과속 등 무질서한 교통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보행자가 4000명에 달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미덕만 갖춘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캠페인

## 태극기 안보인 현충일

### 600세대 아파트 5세대 게양 불과

### 일부 시민들 조기게양법 모르기도

올림픽·월드컵·아시안 게임 등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 응원전에서 다양한 응원도구로 각광받던 태극기가 정작 국가기념일에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게양법에 어긋난 채 달아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북구 동림동 A아파트에는 태극기를 한 집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 아파트 628세대 중 태극기를 게양한 세대는 5세대에 불과했다. 동구 학동 B아파트도 전체 360세대 중 3세대만이 태극기를 달았다. 같은 날 오후 1시 남구 방림동 한 주택가. 주택가 밀집지역인 이곳에는 2층짜리 주택 30~40가구가 밀집해 있었지만,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태극기를 게양한 세대들도 상당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게양해 놓은 상태였다. 현충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라는 조기(帛旗)를 게양하도록 돼 있으나 경축일에 게양하는 방법으로 태극기가 걸려 있는 곳이 많았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현충일을 맞아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태극기 게양이 외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태극기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가 많은 실정이다.

6·25 참전 무공수훈자인 김두업(7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5·18 때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서는 나뉠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현충일에는 황금 연휴(3



현충일인 6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 2가구에만 태극기가 걸려 있으나, 그나마 게양법이 잘못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목포지원 옥암동시대 내일 신청사 개청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이재감)이 오는 8일 옥암동 신청사(사진) 개청식을 갖는다. 이로써 목포지원은 40년의 용해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도청 옆에 자리한 옥암동 청사에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행사는 8일 오전 10시 신청사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조용환 광주고등법원장·심상철 광주지법

법원장, 박지원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각계 인사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에 대지면적 2만7353㎡(8274평), 연면적 1만3702㎡(4144평)의 규모이다.

신청사는 법정동·청사동·민원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원인의 청사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등기과·이동민원실(목포시, 신안군)·은행을 민원동 1층에 배치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5분  
달돋이 10시 24분 달질 23시 43분

자외선 차단제 필수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조금	18/30°C	서울	구름조금	17/25°C
목포	구름조금	17/25°C	인천	구름조금	18/24°C
여수	구름조금	17/31°C	대전	구름조금	17/26°C
나주	구름조금	17/26°C	전주	구름조금	17/26°C
완도	구름조금	17/26°C	대구	구름조금	17/26°C
구례	구름조금	17/26°C	부산	구름조금	17/26°C
강진	구름조금	17/26°C	울릉도	구름조금	17/26°C
해남	구름조금	17/26°C	독도	구름조금	17/26°C
장흥	구름조금	17/26°C	제주도	구름조금	14/20°C
순천	구름조금	17/26°C			
영광	구름조금	17/26°C			
진도	구름조금	17/26°C			
군산	구름조금	16/26°C			
남원	구름조금	15/29°C			
홍산도	구름조금	14/20°C			

지역	바다	중랑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1	낮음	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2	경고	1
	면바다	북동~동	1.0~2.0m	3	높음	2

지역	바다	중랑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05:53	11: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8:03	23:15
	면바다	북동~동	1.0~2.0m	00:29	06:36
				12:43	18:4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8/31	17/29	18/28	18/28	17/29	18/29

### 국립공원의 아생화

### 해발 500m 이상 부식질 풍부한 곳 서식

#### <33> 자란초

'자란초'는 약 50cm 정도로 자라는 풀과 여러해살이풀이다.

해발 5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약고산성 식물의 자란초는 부식질이 풍부하고 보습성이 좋은 그늘진 낙엽수림에서 자란다. 꽃이 피는 모양이 조개나물과



비슷하고, 잎이 커서 '큰잎 조개나물'이라고도 불린다. <박성배 내장식물원장 백암사무소 과장>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기자!!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TEL. 062)228-8000 / 062)221-4130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명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수상배경: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웅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